

치밀한 연출로 그려낸 스펙터클한 자연재해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정이삭 감독 '트위스터스'

영화의 타이틀 'twisters'가 뉴스로만 알던 먼 나라의 토네이도라는 정보 하나만 달랑 갖고서, 이 무더위를 시각적으로 식혀줄 재난영화겠거늘 지레짐작하며 영화관을 찾았다. 영화 보는 도중 "대박, 미쳤다!"가 한 엑스트라 배우의 대사여서 한국 관객을 겨냥하고 삽입한 건가 싶었다. 그러다가 엔딩 크레딧 맨 처음에 'Lee Isaac Jung'이란 이름이 떠서 깜짝 놀랐다. 이때 전, 배우 윤여정을 아카데미 수상식장에 수상자로 서게 해주었던 영화 '미나리' (2020)의 감독이어서였다.



정이삭 감독 '트위스터스'.

위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실한 영화라서, 예컨대 볼거리 한가득인 재해·재난의 스펙터클한 신에 인류와 지구를 구하는 특출한 영웅 출현으로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래서 더욱 '이 감독이라고?' 하며 의아함과 함께 내심 반색을 드러냈던 것이다.

할리우드식 재난영화의 정석이라 해도 감독이 추구하는 색이 있었다. 감독이 갖는 맑은 색은 영화를 뻗은 재난영화로 전락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감독의 철학이 중요하다.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케이트(배우 데이지 에드가 존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흐린 날과 바람을 느끼는 '날씨 소녀'였다. 대학 시절, 토네이도를 길들이겠다고 친구들과 팀을 구성, 자신이 개발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실험을 하다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의 토네이도를 만나 그만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만다. 5년 후, 기상청 직원이 된 그녀는 큰 트라우마를 안은 채 살고 있다. 그러다 함께 살아남은 옛 친구 하비(배우 앤서니 라모스)와의 재회가 다시 토

네이도를 쫓게 한다. 그런데 토네이도를 쫓는 무리는 더 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인 타일러(배우 글렌 파월)의 토네이도 헌터 팀. 이들이 토네이도를 쫓는 데에는 각각 다른 목적이 있다. 목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곳을 향하는 무리들이 힘을 합치면 에너지가 상승하는 법이다. 그녀는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에 힘을 얻어 도전으로 이어지는 열정을 되살리고 토네이도를 향해 질주한다.

영화는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토네이도를 보여 주고 건물 잔해와 자동차, 사람을 날려보내는 강풍과 비바람으로 채우고 있다. 그렇지만 토네이도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다채로운 서사 구조의 짜임새 때문이어서였을 것이다. 우리에게 낯선 토네이도가 강도에 따라 어떤 위력을 갖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현장감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굉음과 강풍으로 지면을 집어삼키는 토네이도가 불어 닥쳐 객석의 관객마저 날려버릴 것만 같은 긴장

감과 박진감을 주는 것은 신 하나 하나에 스펙터클함과 디테일을 겸비한 치밀한 연출 덕이리라. 재난 앞에 개인의 욕망을 더하는 자본주의적 마인드도 놀라웠지만, 감독의 철학은 공공선을 위해 연대하며 타인을 돕고자 하는 신을 통해 드러난다.

'트위스터스'의 원작은 영화 '트위스터' (1996). 두 작품 모두 토네이도 체이서들이 등장해 거대하고 위력적인 자연현상에 맞선다는 즐거움을 갖고있다. 28년 전에 만들어진 '트위스터'가 토네이도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면, '트위스터스'는 한 발 더 나아가 토네이도를 길들이고 멈추려는 이를 그려냈다. 영화를 보며, 토네이도가 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학회 참석차 텍사스 오스틴을 간 적이 있었다. 유학중이던 후배네 집에서 2~3일 머무를 요량이었어서 후배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 그의 집에 가기 전 후배의 와이프를 픽업하러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는데 도통 나오질 않아서 쏟아붓는 빗줄기를 어찌지 못한 채 차 안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잦아들자 차를 벗어나 도서관에 들어섰더니 입구에 '토네이도로 인한 소개령'이 붙어 있었다. 토네이도 경로가 도서관을 통과한다는 예보에 도서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하실로 대피했노라 했다. 그때는 비껴 가서 다행이라 여기고 말았는데, 이제와 영화를 보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체감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토네이도의 패턴 역시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다. 정이삭 감독은 "이럴수록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기보다는 두려움 만큼 사랑이 공존하기를 바란다." 했다.



복숭아 탄저병 '비상', 기후 재난 근본 대책 시급하다

기고 류기준 전남도의원

빨라 즉시 방제가 필요하지만, 일단 발병 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번져서 한 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과 화순군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가에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며, 과원 환경 분석, 탄저병 발생 예방 등 탄저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은 하고 있지만, 탄저병에 대한 특별한 예방과 처방이 없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피해가 과실의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7월 제383회 임시회 전남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 '복숭아 탄저병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한 데 이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화순 복숭아 농장으로 달려가 탄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에 되풀이되는 병충해 발생 양상을 예측해 재배 매뉴얼 및 방제 기술을 적극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 아울러 품종 및 수종 개량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날 농민들은 방치된 미관리 과원(果園, 과수원)에 대한 폐원 지원도 호소했다.

방치된 과원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병충해가 인근 과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폐원을 원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폐원 농가에서

대체 과수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 투자 여력이 있는 농가들어나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 병해충이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탄저병과 같은 병충해의 경우 자연재해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재해보험 가입조차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 중 작물별·지역별 특성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농식품부는 제1차 농업재해 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자연 재해성 병충해' 등도 포함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탄저병의 재해보험

적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신중론이 기후변화 속도에 못 미치는 게 아닌지, 그리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 개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애초에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다. 자연 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농민들에게 이상기후는 1년 농사의 성패를 넘어 생존 문제를 위협하는 전면전과 다름없듯이,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 재난 최전선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짚어보며 이들이 기후 재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